

Ethylene, 485달러로 40달러 폭등

FOB Korea 480-490달러 형성 ... 중국의 2-4월 수요가 핵심요인

Ethylene 가격이 1월3일 FOB Korea 톤당 480-490달러로 평균 40달러 폭등했다.

아시아 에틸렌 시장은 2002년 12월말부터 수급이 타이트하고 나프타 가격이 초강세를 보인 상태에서 PE 및 PVC, EG 가격까지 급등해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.

아시아 나프타 가격은 FOB Singapore이 배럴당 32.45-32.55달러로 톤당 평균 294달러를 형성해 2002년 12월말에 비해 3달러 상승했으며, C&F Japan 가격은 톤당 297.50-303.50달러로 평균 301달러를 형성하면서 강세를 이어갔다.

PE 시장도 에틸렌 가격급등으로 수익성은 좋지 않은 편이나 중국수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가동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 PE 가격은 LLDPE 및 HDPE 필름 그레이드가 CFR China 톤당 580달러 및 590달러를 형성했다.

중국시장은 전형적으로 2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농업용 필름 수요가 증가하면서 PE 수요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.

이에 따라 2월 초순 에틸렌 거래물량 3000톤 가격이 FOB Korea/SE Asia 톤당 500달러까지 치솟았으나 수요자들이 나서지 않아 구매로는 연결되지 않았다. 일본기업들은 FOB 470달러를 요구하고 있다.

그러나 에틸렌 무역상들은 1-2월 수급타이트를 예상하고 CFR 540달러까지 요구하고 있다.

한편, 유럽의 에틸렌 가격은 1월3일 CIF NWE 톤당 390-415달러로 13달러 상승했으며, 4/4분기 계약가격은 톤당 515유로를 나타냈다.

< Chemical Daily News 2003/ 01/ 06 >